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조성된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 복원의 전국 으뜸 사례로 인정받았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빛가람 호수공원이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상

은 생물서식지 복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습지, 공원·녹지, 훼손지 등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 선정한다.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은 '고립된 도시 숲의 자연성 회복과 확장'을 슬로건으로 사업부문 대상 수상 패거리를 안았다. 특히 생태적 건전성, 사람과 자연생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육상·수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시 중앙 부분에 위치한 빛가람 호수공원은 지난 2015년 면적 52만1천861㎡규모로 당초 인공호수로 조성됐으나 자연성 회복과 확장에 중점을 둔 나주시 생태계 강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호수로 변모했다. 공원 중앙에 솟은 배메산은 개발 과정에서 고립되고 일부 숲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이후 기존 숲과 수생태계의 복원·확장, 생물서식처 다양화 전략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종다양성을 보유한 생태호수가 된 빛가람 호수공원은 조류의 경우 33종·434개체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과 2급 삿대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빛가람전망대, 유아숲,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야외공연장, 음악·바다분수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도심 속 녹색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 성료

담양군에서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개최한 '제23회 전국가사문학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가사로 쓰는 아동문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첫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윤영훈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등 8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아동문학으로 쓰는 가사문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제9회 한국가사문학상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총 126편을 시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작은 내지 알기로 함의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을 선정했다.

임명자 씨의 '흰 지팡이 나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박선영 씨의 '함께 가요', 주미선 씨의 '우주열차 정량', 김희숙 씨의 '사이보그의

고전적 산책'이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부 우수상은 광주 일곡초교 3학년 김예진 외 2명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흰 지팡이 나라'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곳의 소리 문화와 일상을 주인공이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고 공생하는 삶의 한 단면을 담담하게 그려나간 점에서 발상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했다.

대회 이튿날에는 '제18회 전국가사시낭송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 47명이 참가했다. 대상은 전영숙 씨, 일반부 최우수상은 이미경 씨, 학생부 최우수상은 박규린(담양무정초등학교 1학년) 양이 수상했다.

일반부 우수상은 윤서영 씨, 김인자 씨, 학생부 우수상은 지윤영(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이정우(담양무정초등학교 1학년), 장려상은 유철종 씨 외 7명에게 돌아갔다.

/장진성 기자

영광, 절주 및 금주 예방교육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건전한 절주 및 금주문화 조성을 위해 25일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초·중·고교(5개교) 636명을 대상으로 금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은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올바른 음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알코올 성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뇌, 신경, 소화기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질환과도 연관돼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는게 중요하다.

올바른 음주 습관 10가지 ▶ 과음하지 않기 ▶ 술을 섞어 마시지 않기 ▶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 ▶ 천천히 마시기 ▶ 물 자주 마시기 ▶ 매일 마시지 않기 ▶ 자신의 주량만큼 마시기 ▶ 약 복용중에 술 마시지 않기 ▶ 다른 사람에게 술 권하지 않기 ▶ 혼술 보다는 여럿이 함께 마시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의 주된 음주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34.2%),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33.6%),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이 민선8기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장성군이 민선8기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장성군은 지난 9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다. 위원 전원이 참석해 장성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행정 개선사항, 지역 주요 현안·쟁점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건도 의제로 다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관광, 농업, 식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총 25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을 축하드리며,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MZ세대 직원 소통 간담회 열어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구복규 화순군수와 MZ세대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젊은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화순군은 직원 764명 중 18%인 134명이 20대 직원이다.

이에 군수와 젊은 직원 간 소통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소통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구복규 군수와 화순군청 20대 직원 100여명, 선배 세대(30·40·50대)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밀레니엄(M) 세대인 80년대 초반생을 포함하면 만 42세 이하 직원이 대상이 되므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요 참석 대상을 20대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간담회에서는 익명으로 미리 취합한 MZ세대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에 관해 토론하고 현장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배찬진 재난안전과 주무관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을 대할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라도 다시 한번 걸어보라는 조언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관해 군수의 생각도 있지만, 다른 세대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선배 세대 직원 몇 명과 간담회를 함께 했다"며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도 많았고, 오해에서 비롯한 고충도 있었다.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